

47. 조선소 도장공에게서 발생한 비호즈킨스 림프종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선박 도장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구OO은 1997년 8월부터 OO중공업(주) 내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년 10월 비호즈킨스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구OO의 작업내용은 블록 스프레이 도장이며, 하루 13-14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장 작업은 실외 또는 도장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도장공장은 전체환기를 위한 배기시설과 페인트 건조를 위한 급기시설이 있으나 이동이 많은 작업의 특성상 국소 배기시설은 없었고 주로 개인보호구로 노출을 낮추고 있었다. 스프레이 도장시 호흡보호구로서 먼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에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용 연결호스를 외부에어장비에 연결 후 사용하며 피부 흡수를 막기 위해 피스복 착용 후 팔목 및 발목 부위에 테이핑을 하고 작업을 한다. 붓도장시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회사측 설명에 의하면 스프레이 도장시는 장소나 도장블럭의 종류에 상관없이 언제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하나 본 근로자에 의하면 외부에서 작업시 때에 따라 방독마스크만 쓰고 작업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과거(2001~2006년) 작업환경 측정 기록을 보면 벤젠은 2001년도에 0.624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 희석액, 경화제를 분석하니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2004년 10월경 약 3일간 대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시행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복부의 종괴를 발견하여 OO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서혜부 림프선의 조직검사 시행하여 anaplastic large cell type의 비호즈킨스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약 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았고 2005년 4월부터 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구OO은

- ① 2004년 비호즈킨스림프종으로 진단받았고, 비호즈킨스림프종과 벤젠 노출의 관련성은 인정되고 있는 편이며,
- ② 1997년경부터 조선소 도장작업에 종사하여 도료 내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 ③ 과거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작업공정, 과거 조선소 도장작업에 대한 문헌 검토 결과, 축적 노출 수준은 현재의 인정기준 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 구OO의 비호즈킨스림프종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